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良齋思想의 理解*

李 銀 赫**

<目 次>

I. 緒言	2. 忠信篤敬
II. 생애와 사승	3. 自戒와 敎學
III. 학문의 본령	IV. 良齋사상의 이해와 전개
1. 反求와 知行合一	V.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한말의 대유학자 良齋 田愚의 재전문인이자 欽齋 崔秉心の 제자인 敬窩 嚴命涉의 학문과 사상을 논한 것이다. 그동안 간재의 학술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에 힘입어 그의 문인들과 재전문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재로부터 금재와 경와에 이르는 시기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 동란이라는 혼란기를 거쳐, 근대에서 현대로 전환되는 시대적 격변기였다.

간재는 퇴계와 율곡, 그리고 우암의 도학을 계승하여 性師心弟說이라는 이기심성론을 제기하였다. 그의 문인들은 일제강점의 현실 속에서 간재의 철학적 명제를 고수하며 주로 敎學을 실천하였다. 그것은 간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금재는 전주 옥류동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재전문인인 경와 또한 곡성에서 金山書塾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간재학을 고수하며 교학에 힘을 기울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29일 良齋學會와 전북대학교 간재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 <良齋學의 深層研究와 良齋學派의 思想特徵>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 imgidang@hanmail.net

경와는 주로 경전에 치력하여 『사서삼경집주언해』 35책을 완성하였고, 경전을 공부하며 의문처를 기록하고 논변한 『讀書記疑』 8책과 일상의 감회를 기록한 『舜山日記』 2권 등을 남겼다. 그 외에 시문을 별도로 편집한 『敬窩私稿』 6권이 필사본으로 전한다. 경와의 학문을 일별해보면 지행합일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대적 격변기에서 처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言忠信 行篤敬을 생활의 지표로 삼아 反求와 自戒를 통하여 修身하고, 아울러 眞知實踐을 학문의 대체로 삼았다. 광복 후에는 금재 최병심을 사사하며 학문을 닦고, 아울러 고향 곡성에 金山書塾을 설립하여 후진을 계도하였다. 국권의 상실과 도학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평생 전통적 교학활동을 전개한 것은 선생이 강조한 실천적 학문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 도학의 집대성이라 믿었던 간재의 사상을 바탕으로 敎學을 실천한 경와 엄명섭의 학문과 사상은, 가치관이 전도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에 시사점을 안겨 준다.

【주제어】 敬窩 嚴命涉, 良齋, 竹師 張柄晦, 欽齋 崔秉心, 性師心弟, 性心地

I. 緒言

敬窩 嚴命涉(1906~2003)은 20세기 西勢東漸의 격변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영민했던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도 조부 晩悟公(嚴日令)과 부모의 계도로 몇몇 스승을 찾아 학문을 연마하였다. 광복 후에는 간재의 嫡統인 금재 선생을 사사하며 간재의 사상을 사숙하였다. 경와 역시 금재와 마찬가지로 講學활동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金山書塾을 설립하여 후학을 지도하고, 말년에는 전주 향교에서 경전을 가르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계승하는데 진력하였다. 眞知實踐을 강조했던 선생은 일관되게 유교의 전통을 계승하며 知行合一의 도학자적 삶을 실천하였다. 학문적 계통으로 보면 竹師 張柄晦와 欽齋 崔秉心の 제자이자 良齋의 再傳門人이다.

경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그 이유는 아직 문집이 세상에 널리 유포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선생께서 98세의 천수를 누리고 서세한 지 1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생은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듬해 태어나 일제강점과 광복 그리고 6.25 동란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격변의 세월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한 세기를 넘겨 2003년에 서세하였다. 이에 『敬窩私稿』(필사본)를 바탕으로 경와 엄명섭 선생의 학문과 간재학의 수용양상을 간략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II. 생애와 사승

嚴命涉은 全南 谷城郡 立面 金山里 출신으로 아버지 嚴鑄容과 忠州池氏¹⁾의 사이의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性率, 호는 敬窩, 本貫은 寧越이다.²⁾ 임진왜란 때 절의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 의사로 일컬어졌던 12世祖 仁元이 처음으로 순창에 定居하면서 이후 世居의 터전이 되었다.³⁾ 선생은 일찍이 학문에 뜻을 세우고 27세 때인 193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에서 학업을 닦았다. 어려서부터 穎悟하여,⁴⁾ 조부 晚悟公(嚴日令)과 부모의 각별한 교육열에 힘입은 바가 컸다. 자녀교육에 각별하였던 조부 만오공의 제안으로 14세 때(1919) 湖山의 小松 晉瑩⁵⁾ 선생을 찾아 3년 간 『小學』과 『通鑑』 등을 수학하였는데,⁶⁾ 그동안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스승을 모셨다.⁷⁾ 당시 선생의 집안이 빈곤하여

-
- 1)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에는 ‘龍載女’라 하였고, 「紀蹟碑文」에는 ‘龍喆女’라 하였다.
 - 2) 호적에는 이름이 ‘受東’으로 되어 있다.
 - 3)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諱仁元, 始居淳昌, 壬辰立殮世稱義士.”
 - 4) 權容禹 撰, 「紀蹟碑文」, “自幼穎悟, 九歲就傳而業課.”
 - 5) 晉瑩奉(?~1951) : 자는 中立. 호는 小松.
 - 6) 『舜山日記』, 庚寅(1950) 3월 1일조, “望哭而除晉小松總服, 命涉初學於先生三年. 讀盡小學諸書, 而有大恩勞, 終亦難忘.”

서책을 구하지 못하고 매번 어렵게 책을 빌려 읽었는데, 어느 봄날 선생이 불순한 말로 모친에게 새 책을 사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친이 웃으며 좋은 말로 반드시 사주겠다고 하고⁸⁾ 서로 상의하여 七書を 印行할 별지를 구해 두었다가, 이듬해(庚申, 1920) 부친이 전주에 나가 손수 인출해 옴으로써 학문의 일대 전기를 맞았다. 이에 대한 과정이 「先妣家狀」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근심하며 서적을 구할 방도를 모색하고 칠서를 인출할 별도의 종이를 구매하였으니, 기미(1919) 봄철의 일이다. (중략) 경신년 봄에 아버지께서 몸소 종이를 지고 전주책방에 가서 印出해 왔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은 뒤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保藏하여 후손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⁹⁾

小松을 사사하던 시기에 서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칠서를 구비한 다음 학자들에게 필수교재인 韻書를 구득한 것도 이 시기였다.¹⁰⁾

이후 栗菴 이기림 옹을 사사하여 『맹자』를 읽었는데 옹이 딸을 아내로 삼아주었다고 전해지니,¹¹⁾ 독실한 학문적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약관 무렵에는 竹師 張柄晦(1871-1941)¹²⁾ 선생을 사사하며 詩書를 배우

-
- 7) 『敬窩私稿』下 권6, 「先妣家狀」, “先祖考晚悟公之意, 欲教不肖兄弟, 約與先妣期看成功, 先妣亦承公意, 忘勞樂教. 歲丁巳, 小松晉公在湖山塾, 翌在晚悟室, 不肖兄弟從學三載, 遵例輪飯, 先妣致誠供奉時, 每設酒.”
- 8) 『敬窩私稿』下 권6, 「先妣家狀」, “初不肖入學無冊, 每艱借讀. 一朝不肖以不順之言告先妣, 不新購冊, 則吾必不學. 先妣笑而好言答必買給”
- 9) 『敬窩私稿』下 권6, 「先妣家狀」, “因告先公, 卽相爲憂謀購書籍, 爲購別紙, 將印七書, 時己未春間事也. (….) 七書, 至庚申春, 先公躬負紙往全州冊房, 印來. 不肖兄弟一讀後, 先公命不肖保藏永世, 以教後孫云.”
- 10) 『敬窩私稿』下 권6, 「先妣家狀」, “且念韻書一冊, 不肖以晉小松之命, 請先妣而先妣給錢所求者也. 不肖每對冊, 未能忍忘也.”
- 11) 權容禹 撰, 「紀蹟碑文」, “受學于栗菴李翁, 讀孟子, 德業成就, 李翁甚愛之重之, 以女妻之.”
- 12) 張柄晦 : 호는 子溫, 호는 竹師, 본관은 仁同이다. 전남 곡성 출신으로 申農山

고, 『중용』의 한 구절을 택하여 ‘性率’이라는 자를 받았다고 전해진다.¹³⁾

경와의 학문적立志는 부친 嚴鑄容(1871-1932)의 영향이 지대하였다.¹⁴⁾ 그는 조부 만오공의 인품과 行誼를 특별히 강조하며¹⁵⁾ 그의 품행과 선조의 문필을 계승할 것을 권계하였다.¹⁶⁾ 이를 위해 평생의 정력을 자녀교육에 쏟았는데, 빈곤한 살림에도 칠서를 새로 구하여 자녀는 물론 후손들이 대대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경와의 학문역정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¹⁷⁾ 부친은 특별한 학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뜻은 강하고 곧았으며, 기품 있는 행동과 孝友가 각별하였다.¹⁸⁾ 이에 경와는 ‘대체를 힘쓰면서도 정밀함과 자상함을 겸하였고, 충신을 위주로 하면서 독실하게 敬을 지켰다’고 부친을 회고하였다.¹⁹⁾ 훗날 경와가 言忠信 行篤敬을 하나의 실천규범으로 설정한 데에는 이러한 부친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한편 부친은 1921년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이 창시한 증산교(甑山敎) 계열의 신종교로 불리는 普天敎가 널리 유행하자 이를 경계시키기도 하였다.²⁰⁾ 울곡이나 우암 선생도 비록 좋은 자질을 타고났지만 결국

에게 배웠으며, 31세 때 간재의 문하에 들어가 대한 제일의 義士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한다. 유고집으로 『竹師遺稿』 2권이 전한다.

- 13) “又從竹師張先生，學詩書，賜字以性率，中庸所謂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之意也。”
- 14) 「紀蹟碑文」，“考諱鑄鎔，業農，惟教子致誠。”
- 15)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先考晚悟公，以寒門孤獨，志瞻過人，素行卓越，可爲吾家之一大人物，亦可爲子孫慕仰。”
- 16)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先君喟然稱戒而曰：吾家文筆，自先世以來，爲吾宗中第一而繼之。至吾三兄弟，因貧未學，此最恨憾之大也。汝祖考晚悟公，因此爲憂，常自稱嘆不已。”
- 17)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平生精力，篤於教子，新購七書而命藏永保，以爲子孫世讀之。”
- 18)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先君爲人，性直而溫，志剛而貞，耳聰目明，氣秀形端，涉履安徐，威儀儼正，惻怛愷悌，孝友勤敏，誠透金石一生云。”
- 19)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先君爲人，性直而溫，志剛而貞，耳聰目明，氣秀形端，涉履安徐，威儀儼正，惻怛愷悌，孝友勤敏，誠透金石一生云。爲務大體而兼精詳。主忠信而守篤敬，節飲食而謹衣服，時言笑而審起止。”
- 20)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近又有普天教徒，盈世撓民而終亦拒絕，後彼輩，

모두 독서를 통해 공을 이루었음을 상기시키며 권면하였다.²¹⁾ 이처럼 선조로부터 부친에 이르기까지 가학의 전통에서 경와에게 전수된 사상은 忠信篤敬이라 할 수 있다.

경와는 금재를 스승으로 모시기 전까지 고향에서 서당을 설립하여 후학을 지도하며 학문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에 의해 자행되는 민족문화의 말살과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이식을 목도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도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자로서 상실감은 물론 위기의식이 자리했을 것이다.²²⁾ 경와가 일생동안 성리학적 체계인 이기심성론이나 인물성동이론과 같은 철학적 명제에 대한 탐구보다 일관된 호학정신으로 경전의 언해와 강학교육에 힘을 기울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달리 말하면, 학자로서 암울한 시대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암증모색에 다름 아니다.

경와가 고향을 벗어나 전주의 금재 최병심의 문하에 든 것은 광복 후의 일이다. 『순산일기』에 따르면, 병술년(1946) 8월 16일에 처음으로 전주의 금재 선생을 배알하고 가르침을 청했는데, 당시 감회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병술년(1946) 8월 16일, 처음으로 금재 최병심 선생을 옥류동에서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니 선생께서 허락하셨다. 이에 앞서 간재 선생의 문집이 일본인의 인가를 얻어 晉陽(지금의 진주)에서 출간되었다. 최 선생께서는 인가의 무고함을 배척하고 팔도의 동지들과 문중에 알려 화이(華夷)의 변별을 매우 엄격히 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영남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다. 내가 이제 와서 처음으

皆自敗覆。吾今賴保確知異教之，必不足信矣。汝等佗鑑戒焉。”

- 21) 『敬窩私稿』下 권6, 「先考家狀」, “聞昔栗尤諸先生, 雖有天分本美, 然終皆以讀書成功云, 汝亦勉之.”
- 22) 朴慧梵에 따르면, 이 시기에 경와는 곡성읍 동악산에 은거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읽던 역사교본을 이어받아 내용을 바로잡고 주석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던 童蒙讀本에 수록해 놓았는데, 이를 ‘動樂山本 조선역사천자문’이라 한다. 박씨는 경와가 비밀독립군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박혜범, 『조선역사천자문』(이담, 2010) 참조.

로 선생을 뵈었는데 이쪽의 의리가 명확하고 또 컸다. 우리 도통의 전함이 여기에서 끊어졌는데, 夷와 夏를 엄격히 방비해야 한다는 節目이 어떻게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 나의 공부가 성취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다.²³⁾

이 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금재 선생을 사사하게 된 계기이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시 巨儒로 일컬어졌던 간재 전우 선생의 문집 발간과 관련한 사건이다. 1922년 간재가 서거한 후, 영남의 몇몇 학자들이 일본인의 인가를 받아 진주에서 『간재사고』를 서둘러 출간한 일에 대하여 금재가 이를 규탄하고 있었다.²⁴⁾ 이에 따라 호남의 간재 문인들 중 금재가 중추가 되어 다시 간재 문집의 편찬을 분주히 도모하였다.²⁵⁾ 이 일은 작게는 간재의 학문과 학맥에 대한 문제이지만, 크게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적 도통에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차대하게 인식되었다. 이처럼 경와가 금재를 스승으로 모신 데에는 간재를 통해 금재로 전해진 성리학적 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도통의 단절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과 학문의 성취라는 호학정신이 맞물려 있다.

금재의 허락이 있는 후, 두 달 남짓 지난 동년 10월 27일, 금재 선생을 다시 찾아 執贖의 예를 행하고 정식으로 문제자가 되었다. 당시 금재의 나이 73세였고 경와는 41세였다.

-
- 23) 『舜山日記』, “丙戌八月十六日, 始拜欽齋崔先生于玉流洞而請教, 先生許之. 先是, 良翁文集, 至得奴認而印刊于晉陽也. 先生斥其認誣而發, 敬告八域同志諸公門中, 甚嚴華夷之辨而時多右嶺者, 議有異同. 某到于今, 始見先生, 此義明確且大, 蓋吾道之傳失此, 夷夏嚴防一節, 何以得宗? 且某工夫無所成就, 故自往請業.”
- 24) 간재 사후, 1927년 문인 金楨鎬吳震泳 등이 연합자로 진주에서 『良齋私稿』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晉州本이라 한다.
- 25) 금재 최병심과 李仁矩 등이 주축이 되어 목판본 『간재사고』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新都本이라 한다. 이때 금재의 문인들도 간재의 유고를 수습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경와 역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순산일기」에 보인다.

같은 해(1946) 10월 27일, 다시 선생을 찾아뵙고 집지의 예를 행하고서 학문을 하는 방법을 여쭙었다. 선생은 ‘篤信好學 守死善道’ 여덟 글자를 훈계하시며 필생의 명맥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폐백을 드릴 때, 사문 金斗鉉이 笏을 부르며 예를 집행하였다.²⁶⁾

경와가 집지의 예를 행했을 때 스승 金재가 訓揭한 『논어』의 ‘篤信好學 守死善道’²⁷⁾는 이후 경와의 학문적 지표가 되었다. 金재가 경와에게 특별히 好學과 善道라는 글자를 택하여 제시한 것은 경와의 학문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인용문에서 경와가 처음 金재에게 배움을 청했을 당시에 이미 道와 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스승 金재가 제시한 두 명제는 사제간의 훈시이지만, 기실 두 사제는 공히 시대적 상황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자적 공동과업의 다짐이었을 것이다.

당시 金재의 문인들은 金재를 통하여 학문을 닦으며 金재의 사상을 사숙하였다.²⁸⁾ 여기에서 『간재집』의 발간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한 것은, 金재가 金재의 유고를 수습하여 발간한 新都本 『간재사고』를 통해 비로소 金재를 사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재는 이미 발간된 진주본과 자신이 주도하여 발간한 新道本이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옛날 『농암집』처럼 정밀하게 교정하여 하나도 중복된 구절이 없는 完定本 全集이 출현하기를 늘 고대하였다.²⁹⁾ 이러한 金재의 바람은 金재를 통해 金재의 사상을 사숙하는 문인들의 학구열에 내심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³⁰⁾

-
- 26) 「舜山日記」, 1946년 10월 27일조, “同年十月二十七日, 再謁先生, 行贊禮而請問爲學之方. 先生訓揭‘篤信好學 守死善道’八箇字, 以爲畢生命脉云云. ○獻贊時, 金斯文斗鉉, 唱笏執禮.”
- 27) 『論語』, 「泰伯」,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 28) 『敬窩私稿』下 권6, 「誠堂朴公行狀(代宋俊浩作○丁巳)」, “欽齋崔先生之學, 寔出良翁之嫡傳, 而私淑於欽齋, 以續其統緒者, 卽我誠堂朴先生, 其人也.”
- 29) 「舜山日記」. “先生曰: 良翁文集, 原有定本, 彼晉州新都二本, 皆非完全也. (…)
念昔農岩集, 嘗自精校無一重複之句, 文集須如此精好, 可也.”

50세 이후에는 고향 마을에 금산서사를 짓고 강학에 힘을 기울였다. 금산서사에 대한 내력이 문집에 보이는 바, 선생이 50세가 되는 을미년(1955) 9월 26일, 舜山 아래 外金村에 私塾 한 채를 지었는데, 이듬해 여름에야 공사가 끝났다. 평소 원나라 백운(白雲) 허겸(許謙)³¹⁾의 고사를 지키고자 했던 선생은 스승 금재를 찾아 처소의 명명을 청하자, 그곳 지명의 유래와 허겸의 강학처인 金華山을 종합하여 金山書舍라 명명하고, 자호인 敬窩를 房號로 인정하였다.³²⁾

경와가 ‘敬’자를 자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현존하는 尊影 우측에 걸려 있는 ‘思無邪 無不敬’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언행의 지표로 삼았던 ‘忠信篤敬’을 꼽을 수 있다. 또 「自戒」라는 글에 ‘敬以克己’ ‘敬直’이라는 말도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경와가 간재의 문집에 있는 다음의 글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천하의 도리는 다만 中庸 두 글자에 있을 뿐이며, 우리 유학의 敎學은 다만 知敬 두 글에 있을 뿐이다. 중용은 하늘이 명한 性이요, 지경은 人心의 能함이 다. 여기에서 내가 말한 성사심제설을 볼 수 있을 것이다.³³⁾

자신의 호로 삼은 敬자는 학자적 삶의 표상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 敬자를 붙였다면 곧 居敬이다.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主一無適이다.³⁴⁾

-
- 30) 「舜山日記」, “又曰: 李太鉉才性甚佳, 每獨良翁集, 口誦不忘, 凡門人之於先生文字, 如此傳習, 爲極善也.”
- 31) 許謙(1270~1337): 원나라 초기의 학자로 자는 益之, 자호는 白雲山人, 백운 선생이라 불렀다. 송이 망하자 일생동안 벼슬하지 않고 金華山에 들어가 30년이 넘도록 朱子의 도를 강론하였다. 특히 평소 정좌를 통해서 심성의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에 주력하여 사람들이 ‘음 속의 양’이라 일컬었다. 四書 등을 깊이 연구하여 註疏를 내었으며, 『毛詩名物鈔』 등의 저서가 있다.
- 32) 『敬窩私稿』下 권4, 「金山書舍起立及命名說」 참조. 경와가 금재의 간찰을 엮어 만든 『欽齋尺牘』에는 이보다 앞선 辛卯午月(1951.5)에 금재가 친필로 써준 「敬窩銘」이 있다. 이로써 이미 이전부터 ‘敬窩’라는 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33) 『良齋先生文集後編』 권7, 「答朴義堧 乙卯」, “天下道理, 只有中庸兩字而已; 吾儒敎學, 只有知敬兩字而已. 中庸是天命之性; 知敬是人心之能, 此可見老師所發性師心弟之說矣.”

경은 언행을 삼가고, 모든 사물을 경건히 대하고,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내는 것이며, 하나를 주장하여 다른 길로 감이 없는 그런 경지이다. 간재가 유학의 교학이 敬을 아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경와는 실천적 삶의 지표로서 敬을 설정하고 일생 知敬을 실천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敬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선생은 허약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심신의 수양과 절제된 삶으로 98세의 천수를 누렸다. 저서로는 『敬窩私稿』 6권과³⁴⁾ 『四書三經集註諺解』 35책, 『讀書記疑』 8책, 『舜山日記』 2권 등이 전한다.

Ⅲ. 학문의 본령

1. 反求와 知行合一

경와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리학의 철학적 개념의 탐구보다는 주로 경전을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성현의 도를 실천하려는 도학자적 입장이 강하였다. 경와의 생애가 전통이 몰락하고 가치관이 급변하는 격변의 시대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귀결로 보여진다. 시대적 사명감이란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학자적 본분을 정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반성이 동반된다.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물의 이치가 자신에게 내재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답을 구한 다음에는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야말로 학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의무이다. 경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反求를 통해 경전의 참뜻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34) 『論語』, 「學而」,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章用而愛人, 使民以時.” 주에 “敬者, 主一無適之謂.”라고 함.

35) 후일 합본으로 상하 2권으로 편집되었다.

금재를 사사하게 되면서 이처럼 경전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反求 정신은 더욱 강화되었다. 금재의 문하에 들어간 이듬해(정해, 1947), 스승에게 처음으로 보낸 서간에서 경와의 학자적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간절하게 인을 구하고 정밀하게 학문을 닦는 일은 먼저 마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충직하게 도의 端確함을 보고서 독실하고 경건하게 행하며, 문장으로 발휘하는 것은 서로 표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行과 文은 특별히 仁과 知가 간직되어 나타나는 영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함에 반드시 스스로 자기를 위하고 도를 위해야 하며, 참으로 알고 실천하여 한 몸 심성의 이치에서 구하여 내면에 가까워지도록 힘써 공부하는 자라야 거의 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초학자는 방향을 모르는데 진실로 방향을 제시해 줄 스승마저 없으니, 旁岐의 의혹됨이 없이 동분서주하지 않는 자가 드뭅니다. 그러니 그간의 노고를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³⁶⁾

경와는 求仁과 修學을 동시에 추구하여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자 하였다. 學과 仁은 知와 行으로 대치되는 표리적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眞知와 實踐이라는 말도 이에 다름 아니다. 실천이 동반하지 않는 얇은 眞知가 아니다. 知는 行 즉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경와가 학문의 목표로 설정한 구인과 수학은 앞서 금재가 훈시해준 篤敬과 善道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求仁은 篤敬함으로 실천함을 말하고, 修學은 善道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경와는 知행의 일치를 가장 이상적인 학문이라 생각하였다. 이것이 비단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와는 시대적으로 지행이 불합치되는 상황을 수없이 목도한 상황에서 진정한 학문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전처럼 이치만을 따지거나 수양에만 그치는

36)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丁亥」, “求仁之切, 修學之精, 先在乎立心, 忠直見道端確, 而行之篤敬, 文之發揮, 相爲表裏. 然其行與文, 特爲仁知存著之影響矣. 故爲學, 必自爲己爲道, 眞知實踐, 求諸一身心性之理, 而近裡做工者, 似見庶幾入德矣. 雖然初學不知向方, 苟無師授指南, 則其無旁岐之惑, 而不爲東奔西走者, 鮮矣. 其間苦勞爲當如何哉?”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다 결국 포기하고 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³⁷⁾

경와가 현실적으로 지극히 염려한 것은 지행불일치의 문제이다. 경와가 안연의 ‘三月不違仁’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을 보더라도 知보다 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에서 비롯하여 행으로 귀결하는 것이니 지행합일이라는 것은 결국 行의 문제이며 학문의 극적인 효과라고 강조하였다.³⁸⁾ 경와가 경전에서 유독 안연의 不違仁을 들어 스승 금재에게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교시를 구한 것은, 지행합일로서 시대적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서간에서 형식상 가르침을 구하였지만 실은 학문의 목표 설정에 대한 대체를 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보내진 서간들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

소자가 다행스럽게도 선생의 사랑스런 은혜를 입어, 선생께서 晦庵의 글을 읽고 삼가 기록해보라고 권하신 가르침을 받았는데, 열심히 늘상 스스로 돌이켜 구한 끝에 겨우 理의 무궁한 묘가 이와 같음을 홀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놓아버린 지 이미 오래고, 전날의 구습에 젖어 비록 스스로 수렴하고 檢攝하는 중에도 문득 違越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어찌하여 공부가 生熟하지 않고 그럴까 매번 스스로 근심하며 돌이켜 내 마음에서 구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내달리지 않고 조금도 세어나가지 않도록 했지만, 갑자기 스스로 나아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선생께서 지극한 가르침을 내리시어 깨우쳐 주십시오.³⁹⁾

- 37)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丁亥」, “所以學者, 貴得賢師聞道明善, 自初, 發軔正路, 而無或脫線也. 蓋仁道至大, 而本自無窮, 故其應亦自無窮. 學者不知有此, 苟於格致誠正之功, 不用其極, 而心或偏蔽乎一隅, 則不能盡其無窮之體, 應其無窮之用, 而自不知其墮在昏昧暴棄之中矣. 豈盡心盡性而光明浩然之謂哉?”
- 38)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丁亥」, “竊想顏子三月不違仁, 此是知行一致, 心理凝合之爲學極功也. 非顏子亞聖之資, 不能如此. 又非孔夫子之聖德純至, 與天地合而明察此工所造之域, 孰能表而稱之, 使後學道者, 知有目的地頭而勉勵企及之哉? 千古學聖者, 只是不過學此不違仁之道而已矣. 而過三月, 則便渾然與天地同體矣. 聖學之極功, 孰有加此哉?”

금재는 앞서 경전을 공부하는 경와에게 주자의 글을 잘 보라고 권면한 듯하다. 이에 경와는 주자의 글을 읽고 채록하며 오랫동안 潛心玩索하여 조금이나마 理의 무궁한 묘를 깨달았다고 회고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은 反求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구하는 사색으로 이치를 깨닫고, 또 일상의 언행을 스스로 경계하여 지행합일을 이루려 힘썼음을 알 수 있다.

2. 忠信篤敬

경와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지행일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대하며 터득한 지식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博文하고 후에 約禮한다는 말은 앞서 말한 지행일치와 상통하는 말이다. 그것이 孔門에서 행해진 敎學의 본령이라고 믿었다. 역시 이론적 博文보다는 실천적 의미의 約禮에 비중을 두었다. 경와는 熟讀經傳, 通透文理, 忠信篤敬, 踐言修身을 학문의 대체로 삼고 이를 실천하였다. 經傳을 숙독하여 문리를 깨닫는 일은 博文에 해당하고, 忠信과 篤敬으로 말을 실천하고 몸을 닦는 일은 約禮에 빗댈 수 있다. ‘行百里者 半九十里’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문리를 통하더라도 그것이 언행으로 귀결되지 못하면 한갓 空論에 그치고 만다.

학문을 하는 순서는 먼저 널리 文을 배우고 후에 禮로써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孔門敎學의 본령이며, 또한 이른바 知圓行方의 의미입니다. 소자는 꼭 막힌 채 오랫동안 학문을 닦으며 단지 經傳을 숙독하여 文理를 통하고, 충신하고 독경하며, 말을 실천하고 몸을 수양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대체가 된다는 것만

39)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丁亥」, “小子幸蒙先生愛恤之恩, 受先生勸讀晦菴言敬錄之訓, 區區常自反求之餘, 纔忽覺得此理無窮之妙如此. 然此心放之已久, 熟於前習, 雖自收斂檢攝中, 便多違越不已, 豈非工夫生熟而然也歟? 每自爲憂反求此心, 使無馳驚無少漏, 忽而懼未能自進. 伏願先生幸垂至訓, 以示指諭.”

알았지, 맨 꼭대기는 다시 精微하게 서술하고 지어내 말휘해야 마침내 배움이 완성되는 終條里의 일이 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百家를 널리 섭렵하여 그 회통처를 보고, 異同을 참조하고 절충하여 取善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널리 상세한 설을 배우고서 학설을 돌이켜 요약해야함을 말합니다. 애태우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어도 달지가 않습니다.⁴⁰⁾

경와는 앞에 제시한 학문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었을 뿐 언행으로 직접 실천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와의 학문에 대한 관념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경와가 그동안 지행일치와 박문약례를 학문의 대체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미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行과 約禮의 문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한다. 이런 생각은 금재를 사사한 이후 경전을 벗어나 새롭게 역대 古文을 섭렵하면서 나타났다.

실천은 곧 언행이다. 일상의 언행은 忠信과 篤敬으로 해야 한다. 言忠信 行篤敬이 언행의 지표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면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기 보다는 주체자의 진실한 심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관념적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이나 자세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는 아니다. 경와의 실천적 관념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에서 방법의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문 공부의 발단이 되었다. 오랫동안 경전을 통해 다져온 관념들을 언행을 통해서 실천하여 학문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언행의 방법이 문장과 저술이라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그것을 후세에 전해야 학문이 완성되고 조리를 끝맺는 일임을 비로

40)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壬辰」, “蓋爲學次第, 先博文, 後約禮, 此是孔門教學本領, 而亦所謂知圓行方之義也. 小子固滯歷來治學, 只知熟讀經傳, 通透文理, 忠信篤敬, 踐言修身, 乃爲爲學大體. 不知上頭更有精微述作發揮, 竟爲學成終條理之事. 且不知博涉百家, 觀其會通, 參照異同而折衷取善之義, 是其博學詳說而反說約之謂哉! 憤悱不已矣, 寢食不甘矣.” p.249.

소 깨달았다는 것이다.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기만의 학문적 논리를 계발하여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문자로 서술하여 후세에 남겨야 학문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경와의 학문에 일대 전기를 가져와 수신과 교학활동을 펼치면서 경전의 집주와 언해현토는 물론 많은 시편과 문편을 남기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언행에 대한 忠信篤敬은 『논어』의 공자의 말씀에서 기인하였다.⁴¹⁾ 또 修身踐言은 『예기』에서 摘取하였다.⁴²⁾ 이처럼 실천적 의미를 지닌 約禮의 개념들을 경전에서 뽑아 학문의 이정표로 설정한 점이 주목된다.

학문의 강령을 설정한 뒤 이를 보충하는 치밀한 공부가 지속되었다. 경와는 주로 서간을 통해 금재에게 질의하고 교시를 받았다. 그 중에는 일상적인 예법 즉 상례에 대한 것이 비교적 많고, 『논어』 「팔일」편의 소주 내용에 대한 질문, 「중용독법」 구절의 내용과 언해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47세 임진(1952)년에는 당시 『月坡集』 간행과 더불어 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 문학작품을 섭렵하면서 疑目を 만들어 질문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언해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처럼 경와가 언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정확한 언해가 文理를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훗날 『사서삼경집주언해』 35책이라는 방대한 성과로 집약되었다.⁴³⁾ 경와의 학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이자 한국 경학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경와는 강학과 교학을 겸하며 경전의 집주언해에 치력하여 작은 결실을 맺을 때마다 소감을 적어 두었다.⁴⁴⁾

41) 『論語』, 「衛靈公」,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42) 『禮記』, 「曲禮上」, “夫禮者, 所以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禮, 不妄說人, 不辭費. 禮, 不踰節, 不侵侮, 不好狎. 修身踐言, 謂之善行. 行修言道, 禮之質也. 禮聞取於人, 不聞取人. 禮聞來學, 不聞往教.”

43)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와는 35책을 손수 필사하여 완성하였으며, 현재 손자 엄찬영 씨가 입력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경학사에 중요한 성과인 만큼 하루빨리 정리 공개되어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3. 自戒와 教學

경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이다. 젊은 시절부터 서당을 개설하여 후진을 계도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경와의 삶에 교육이 크게 자리한 것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개인의 학문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단절의 위기에 놓인 도학의 전통과 가치관의 顛倒는 커다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삶도 변한다. 일제 강점의 시기와 민족의 동란을 거치며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선생은 학문탐구와 더불어 교육을 병행하였다. 고향에 금산서사를 설립하여 오랫동안 교육하고, 또 7여 년 동안 전주향교 동재에 머물며 유가경전을 지도하였으며, 향교 퇴임 후에는 진주에 松川서당을 개설하여 후학을 지도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⁴⁵⁾ 이처럼 경와는 외세에 밀려 쫓겨나는 유학의 전통을 보전하는데 일생을 오롯이 바쳤다.

광복 이후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을 것이다. 경와는 이즈음 「自戒」와 「日誦」, 「自警」이라는 여러 편의 글을 지어 스스로를 단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틈이 나면 시를 지어 자신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다짐이 1946년부터 1952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가 경와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확고하게 지켜나가려는 데에서 내면적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시기는 고향을 벗어나 전주 옥류동의 금재를 사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깊어지는 학문의 깊이만큼 고민 또한 확대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을 경계한 글 하나를 소개한다.

오직 성은 하나의 이치라서 애초부터 不善함이 없다. 다만 그 감정의 발함이

44) 『敬窩私稿』下, 題跋에 「題詩經集註吐後」, 「題論語集註吐後」, 「題要訣諺解後」라는 글이 보인다.

45) 1976년 2월 1일 전주 향교 동재 교학장으로 취임하여 1983년 2월 1일에 퇴임하였다. 「호남의 선비 嚴命涉」 참조.

중도에 맞지 않아서 偏倚와 過不及의 失正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너는 중도에 거하면서 성을 받들어 간직하고, 감정을 살펴 교정하고, 생각을 돈독히 하여 성실하고, 결연한 의지로 지켜야 한다. 이 이후로부터 또 敬直을 요하니, 끝까지 인을 어기지 말며, 죽더라도 의를 어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다시 욕심에 빠져 이러한 氣를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質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마음이 알지 못하고 뜻이 돈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어찌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⁴⁶⁾

성리학적 가치관 속에서 중용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다짐이다. 애초에 인간은 불선함이 없는 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에 맞게 감정을 잘 다스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처신해야 함을 말한다. 또 敬直을 중시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仁義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중용적 삶이 일생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먼저 알아야 하고, 다음에 실천해야 하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곧 智仁勇이며 이 또한 자신과의 싸움임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 몇 년 뒤, 좀 더 세부적으로 논한 자계의 글이다.

심신을 수렴하고 威儀를 檢攝하며 가까운 말을 살펴 조심하고, 恒德을 고수하여 몸소 교학의 선봉이 된다. 또 모름지기 한가한 틈에는 다양한 경전과 사서를 읽어 자득하여 이전에 널리 공부하지 못했던 文을 보충하고 오늘날 미진한 禮를 요약한다. 확고하게 우뚝 서서 점차 극도의 경지를 조성한다. 독서를 할 때 많은 것을 탐하거나 연기만을 힘써 조금하게 섭렵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한 책을 처음부터 상세히 보고 말미에 이르러 훤히 통한다. 이에 또 장차 한 책을 또 이와 같이 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서책의 의미와 더불어 깊이 깨달아 도를 얻도록 한 연후에야 비로소 盡心 盡性의 효과를 보고, 거의 伐齊爲名의 치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4일에, 경와가 스스로 지어 경계한다.⁴⁷⁾

46) 『敬窩私稿』下 권4, 「自戒 丙戌五念二」, “惟性一理, 初無不善, 特因其情發不中節而有偏倚過不及之失正焉。宜汝居中, 奉性存之, 察情矯之, 篤意識之, 決志守之。自是以後, 又要敬直, 終勿違仁, 死勿虧義, 若復汨慾, 不勝此氣, 不變此質, 是心不識, 是志不篤, 何不愧天, 何不作人。”

앞에서 성정으로 대체를 논한 것과는 달리 스스로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한다. 심신을 수양하고 언행을 삼가며, 항상 덕 있는 행동으로 교학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조급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진지한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스스로를 檢束하는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서법이다.

경와는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을 자주 인용하며 스스로 다짐하였다. 기질에 구속되거나 욕심에 가리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다. 특히 개성을 강조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조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와는 이러한 것은 우물에 떨어지는 것보다 심하다는 간재의 말을 인용하며 사심을 이겨낼 것을 다짐한다.⁴⁸⁾ 대다수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만, 자신은 그동안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자리해 왔던 정신문화를 지키는 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의지가 깊이 배어 있다. 이처럼 경와의 敎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사로움을 경계하며 닦은 수양이 바탕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師表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와는 문인들과의 편지에서 누차 독서법에 대해 설파하였다. 이는 주로 후학들의 조급한 마음을 단속하고 학업을 권면하는 차원이지만, 일종의 공부론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와의 학문방법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경와는 책을 읽을 때 먼저 熟讀할

- 47) 『敬窩私稿』下 권4, 「自戒 壬辰」, “收斂身心, 檢攝威儀, 以之察慎邇言, 固守恒德, 以躬爲敎導之先. 又須暇隙, 讀得多般經史, 以充前日未博之文, 以約今日未盡之禮. 確乎卓立, 漸造極域, 至於讀書, 不可貪多務得, 忙迫涉獵, 日將一冊從頭詳看, 至尾通透. 於是又將一冊亦如之, 期使吾心與書義, 契悟得道, 然後始見盡心盡性之效, 而庶免伐齊爲名之耻矣. 二月念四日, 敬窩自題以戒警焉.”
- 48) 『敬窩私稿』下 권4, 「日誦 丙戌九月念五」, “人之性善, 本皆堯舜, 汝何落衆, 存心不篤. 心之虛靈, 自無不能, 今汝不移, 豈其學明? 一點色慾, 卽殺命理, 顧察機微, 敬以克己. 一匙之貪, 實破腹胃, 窒慾以懲貞, 勿失大. 心要活潑, 且守慷慨, 事貴勤敏, 恒自策勵, 居處以莊, 執事以敬, 夙夜戰兢, 庶幾無怍. 今終一誓, 勿貳爾德, 渾然萬善, 精一貫得, 氣拘慾蔽, 譬甚墮井, 要出一念, 豈容馳騁. [墮井之譬, 是艮翁告朴在一之語, 而克己工夫, 莫切於此. 語在余撰道山行狀中.]”

것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에 깊은 사색을 통해自得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은 문인 梁永煥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책을 볼 때는 먼저 모름지기 숙독해야 하며, 그 말이 모두 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한다. 계속 정밀하게 사색하여 그 뜻이 모두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회암부자(주자)의 가르침인데 『畜德錄』에 실려 있으니 어찌 독서의 법이 아니겠는가. 내가 강학하면서 전날의 과제를 잊지 않고 암송하여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밝혀냈는데, 이것이 바로 숙독하고 정밀히 사색한 일종의 얻음이다. 매번 이와 같이 오랫동안 진행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어찌 또한 성공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랴. 자고로 성인은 학문으로써 자신을 이루는 근본을 삼지 않음이 없으니, 뜻을 두고 배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버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스스로 진정으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맹자가 이른바 사람들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 반드시 나의 실질을 속이지 않음을 봄이 있어야 한다.⁴⁹⁾

학문을 닦으면서 부단히 일어나는 사사로운 번민과 갈등을 自戒를 통해 극복한 뒤 후학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듯하다. 경외는 줄곧 眞知 實踐을 강조한다. 이것을 교육적 이념으로 삼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경외가 학문의 완성이라 믿었던 지행일치의 다른 표현이다.

경외는 50세 무렵, 고향에 금산서사를 세우고 교학을 실천하면서 立志, 檢行, 讀書, 習字, 著述, 罰則라는 여섯 가지 규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교육에 임하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입지가 가장 우선이며, 누구나 배워 실천하면 요순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였다.⁵⁰⁾

49) 『敬窩私稿』上 권2, 「與梁永煥 丙戌」, “大抵觀書, 先須熟讀, 使其言, 皆若出於吾之口; 繼以精思, 使其意, 皆若出於吾之心, 然後可以有得. 此晦菴夫子之訓, 而載在『畜德錄』. 豈不爲讀書之法耶? 吾秀講學, 不忘前日課, 誦而發明於尋常言論之餘, 此正熟讀精思之一得也. 每如是長進不已焉, 則豈亦不爲成功之由也耶. 自古聖賢莫不以學問爲成己之本, 有志而學者, 不可推與於別人, 必自眞知而實踐焉, 則孟子所謂人皆可以爲堯舜者, 必有見其不欺余之實矣.”

50) 『敬窩私稿』下 권4, 「金山書舍規約 癸卯二月日」, “立志: 人性本善, 初無聖衆之分, 由學皆可以爲堯舜. 此吾名教所以篤信好學明善誠身而必期至乎全性也. 然其

경와는 체구가 왜소하고 약하였다. 금재는 열세한 체력으로 학문에 종사하는 경와를 격려하며 교육이야말로 군자삼락의 도가 있다고 권면한다.⁵¹⁾ 이때 행해진 옥동문답에 금재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간재의 임종 직전을 예로 들어 금재의 임종에 즈음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하기도 하였다. 경와는 자신을 격려하는 스승 금재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소자의 학문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맹세컨대 俗學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스스로 독실하게 옛 것을 믿어 白雲 許謙의 고사를 지키고자 합니다. 夷夏의 방비를 엄격히 하고 후진을 가르쳐서, 선생께서 소자의 서사를 금산으로 명명하신 뜻을 등지지 않겠습니다.⁵²⁾

송나라가 망한 후 원나라에 출사하지 않고 金華山으로 들어가 주자학을 강론하며 일생을 보냈던 허겸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금재가 명명해준 金山書舍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스승을 안심시켰다. 봄날의 옥류동 강학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경와는 금재에게 안부편지를 보냈으나 금재는 끝내 붓을 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을 들었다.⁵³⁾ 정유년(1957) 봄의 玉洞問答이 간재의 적통으로 높이 받들었던 스승 금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全性之道，先自敬身而正心術攝威儀謹衣服節飲食男女之慾，以之敦五倫明庶物而庶幾爲入德進聖之路脉也。”

- 51) 『敬窩私稿』下 권4, 「玉洞問答」, “子則氣弱而太勞矣。雖勞而終勉焉，聖賢種子，豈不自此讀聖書中而出也耶? 且君子三樂之道，亦不在是耶?”
- 52) 『敬窩私稿』下 권4, 「玉洞問答」, “命涉曰：小子學，雖未成，誓不爲俗染，終自篤信古昔，欲守許白雲謙故事，以嚴夷夏之防，而教授後進，庶不負先生命名小子書舍以金山之義也。”
- 53)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玉洞問答」에 보인다.

IV. 良齋사상의 이해와 전개

경와는 금재를 사사하기 이전부터 간재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와의 나이 17세 때 간재가 별세하였으므로 간재의 親炙를 받지 못하였다. 금재의 문하에 입문하기 이전 해인 40세 때(1945) 쓴 「性師心弟說示諸君」이라는 단문이 문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사숙을 통해 이미 간재학의 핵심명제인 ‘性師心弟說’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은 리이다. 형태가 없고 작위가 없으며 心器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 시작은不善함이 없고 不具함이 없다. 지극히 존귀하여 萬機를 주재하는 것이며 스스로 내 마음의 큰 선생이 되는 것이다. 심은 기이다. 형태가 있고 작위가 있으며 方寸의 가운데 받들어 자리한다. 그 근본은 또한 불선함이 없고 불능함이 없다. 지극히 영묘하여 즉 萬機를 주재할 수 있어 스스로 一性의 賢弟가 된다. 허령하고 지극히 묘한 마음으로 존귀하고 至善한 성을 배워 조금도 違離됨이 없고 조금도 遺忘함이 없이 절로 不盡함이 없고 절로 不勉함이 없으면 이를 誠敬이라 이르고 이를 率性이라 말한다. 이와 같이 하면 천하가 그 어찌 不明한 理와 不成한 物이 있겠는가. 聖學의 덕으로 나아감이 지극히 工하면 반드시 저 절로 이것이 다해질 것이다. 心率性의 공부와 人學聖의 도를 어찌 스스로 다하고 스스로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 간재 선생이 일생에 체득한 의리이며, 막힘이 없는 지극한 가르침을 통달해 보이고, 또한 우리나라 도학이 집대성된 본원이 되는 것이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학문을 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의미를 체득하고 강령을 세워 터득하고 확충하여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받드는 간재 선생이 학문을 걱정하며 하늘에 빌었던 진정한 뜻이 아니겠는가. 제군들이여 힘써 달라.⁵⁴⁾

54) 『敬窩私稿』下 권4, 「性師心弟說示諸君 乙酉」, “性卽理也. 無形無爲, 而位存乎心器之中. 其始也, 無有不善, 無有不具, 至尊至貴, 所以主宰萬機. 而自爲吾心之大先生也. 心卽氣也, 有形有爲, 而奉位乎方寸之中. 其本也, 亦無有不善, 無有不能, 至靈至妙, 卽能主宰萬機. 而自爲一性之賢弟子. 以虛靈至妙之心, 學尊貴至善之性, 而無少違離, 無少遺忘, 自無不盡, 自無不勉, 是之謂誠敬. 是之謂率性, 如此則天下其何有不明之理, 不成之物哉. 聖學進德極工, 必自此可盡矣. 心率性之工,

이 글은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 경와가 고향에서 강학활동을 할 때 제자들에게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각 문구 사이에 細註를 곁들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간재의 학설을 지극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나아가 우리나라 도학의 집대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간재가 평생동안 체득한 학문의 본령이 성리학에 있음을 들고, 性卽理 心卽氣를 전제로 性師心弟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至妙한 마음으로 至善한 성을 배워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되면 그것을 誠敬 또는 率性이라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率性 공부를 해야 하고, 사람은 성인의 도를 배워 스스로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경와는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토대로 학문의 강령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간재학에 대한 믿음은 단절의 위기에 있는 도학을 계승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승화하였고, 또 그 일념을 이루기 위해서 教學을 실천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였다.

간재의 嫡傳으로 불리는 금재를 찾아 배움을 청하고 문하로 입문한 기저에는 간재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작용하였다. 도통이 송대 程朱로부터 조선의 율곡와 우암을 거쳐 간재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다시 간재학이 금재로 전해졌다는 믿음이 더해졌다. 이처럼 경와가 몸소 금재를 찾아 사사하게 된 것은 순수한 請學의 발로에 앞서, 도통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치관념의 변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도 주어져있다는 절박감이 우선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에 간재의 도통이 이미 정자·주자·율곡·우암에 접하였으니, 천하의 예가 華鳴(계화도)에 있었다. 艮聖이 돌아가신 뒤에 도학의 嫡傳이 우리 선생(최병십)에게 돌아오니, 조선의 예의가 옥류동에 있다. 천하의 예의가 조선에

人學聖之道，豈可不自盡自明耶？此吾良翁一生體得義理，而通見無滯之至訓，而亦所以爲吾東道學集大成之本源也。願須爲學，必體此義，立得綱領而擴充成之。豈非奉吾良翁憂學，視天之眞意耶？諸君乎勉之！”

모여 있고, 조선의 예의가 선생에게 모여 있으니, 선생께서는 천하에 그 책임지고 있는 도를 마땅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⁵⁵⁾

경와는 금재의 문하에 입문한 후 이후 스승과 『간재집』을 통해 간재를 사숙하였다. 경와가 스승 금재에게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간재집』 발간과 원고에 대해 문답한 것이 문집과 일기에 보인다.⁵⁶⁾ 그러나 시기를 추정해보면 경와는 이미 금재를 사사하기 이전에 『간재집』을 접했음이 확인된다. 1924년 진주본(연활자본) 『간재집』이 認刊된 후 1924에서 1928년에 걸쳐 신도본(목판본)이 나왔지만 이것들이 모두 未完하다고 여겨, 다시 간재의 제자 竹師 張柄晦가 두 문집을 구해 대조 교열하여 개인적으로 『간재집』을 발간하려 작업을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경와에게 뒷일을 부탁하여 謄寫하기도 하였다.⁵⁷⁾ 죽사는 금재를 사사하기 이전의 스승이다. 이처럼 경와는 죽사를 통해 처음 『간재집』과 간재의 학문을 접하였고, 어느 정도 간재의 학설을 이해하고 있었다. 금재를 만난 직후 『간재집』의 소재를 문답한 것도 이전에 갖고 있던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글에서 느낄 수 있듯, 병술년(1946) 봄에 죽사가 세상을 떠나자, 그 해 가을 간재의 적통인 금재를 찾아 사사함으로써 간재를 사숙함이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금재를 간재의 嫡統으로 대함에 그 의기를 느낄 수 있다.

- 55)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戊子」, “當時良翁道統既接程朱栗尤, 則天下之禮, 在於華鳴. 良聖沒後, 道學嫡傳, 歸吾先生, 則朝鮮之禮義, 在於玉流洞矣. 天下之禮義, 聚在朝鮮, 朝鮮之禮義, 聚在先生, 則先生之於天下也. 其任責之道, 爲當如何哉?”
- 56) 『敬窩私稿』下 권4, 「師訓記聞 癸巳八月四日」 참조. 『舜山日記』 12쪽, “問良翁手定本稿, 今何所在? 先生曰: 本皆留我, 而十冊在李仁矩處, 八冊在金澤述處, 其去李十冊, 鎰中負給去, 金八冊, 晉本印後金以校照次持去也. 蓋晉本印後, 校其異同, 本吾所爲也. 金聞此說, 以其勞苦分同爲言而持冊去時. 此中同校人, 偕往校畢而冊尙不來. 故十八冊, 今不在我也.”
- 57) 『舜山日記』, 12쪽, “問竹師平日, 謄置良翁本稿, 又買求晉新二本, 其意蓋欲參校而更自刊印也. 臨終有托後事於小子, 而竹師沒後, 金英淵自主之, 新本出給黃璟淵謄本, 金英淵自持之晉本, 留竹師仲子宅, 而小子侍購而謄冊.” 9쪽, “竹師易簀時, 有托後事于命涉, 故欲校晉新二本規模, 而自培山侍來, 時則丙戌春事也.”

경와가 옥류동의 금재를 사사했던 시기는 10년 남짓인데⁵⁸⁾ 극진하게 스승을 모시며 斯文들과 함께 간재의 학문을 사숙하며 토론하였다. 그런 흔적은 주로 『순산일기』에 보인다. 경와가 오랫동안 간재를 사숙하면서 성사심제설을 늘 강령으로 삼고 있었음은 다음의 글에서 증명된다.

‘性天心地 罔敢易位’ 이 두 구절은 내가 꿈속에서 얻은 말이다. 그 뜻은 성존 심비로 자리를 나눈 것이 마치 천지의 상하 준비와 같아서 털끝만큼 잠시라도 뒤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는 子思의 ‘천지위언(天地位焉)’이라는 가르침과 주자의 ‘천양역처(天壤易處)’라는 문장에 근본한 것이다. 얼마 후에 또 이런 뜻이 간재의 ‘성사심제’라는 말과 서로 표리가 되어, 내가 평생에 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스스로 평생 독실하게 공부할 근본 기틀로 삼았다. 늘그막에 학설을 만들었으니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이 학설은 찾아와 배우는 후진들과 더불어 함께 힘쓰려 한다. 나를 따라 학문에 종사하는 자들이 마땅히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⁵⁹⁾

이 기사는 경와가 꿈속에서 두 구절을 얻고, 그 학문적 의의를 기록한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간재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가하고자 늘 고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간재가 性과 心の 관계를 性師心弟 또는 性尊心卑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경와가 다시 성과 심을 각각 天地라는 불가역적 개념으로 환치하여 性天心地라고 재규정한 것은 간재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師弟나 尊卑보다는 天地라는 개념이 뒤바꿀 수 없는 상하적 개념이기 때문에 감히 天地라는 글자로 바꾸어 표

58) 김지의 예를 행하고 문하에 입문한 1946년 가을부터 금재가 별세한 1957년 6월까지이다.

59) 『敬窩私稿』下 권4, 「自警靈臺」, “『性天心地 罔敢易位』右二句, 是余夢餘所得之言也. 其意以爲性心尊卑之分位, 有如天地之上下尊卑, 而一毫頃刻之不可違易也. 此義本乎述聖天地位焉之訓, 紫陽天壤易處之文, 而來. 且此意與艮翁性師心弟之言, 相爲表裏, 是余知爲平生大夢, 亦自以爲平生篤工之根基者也. 晚暮爲學, 竟豈可不自勉力也哉? 且此學欲與來學後進共勗焉. 願從余遊者, 宜先知之可也.”

현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앞서 「性師心弟說示諸君」이라는 글이 쓰여진 것은 을유년(1945)이고, 스승 최병심이 별세한 7년 뒤인 갑진년(1964) 2월에 이러한 철학적 명제가 제기된 것을 보면, 20여 년을 거치면서 간재의 학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신념이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철학적 명제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나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에도 간재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성론을 말한다. 경와가 일생에 걸쳐 이기심성론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설을 개진하지 않았지만, 주자학에 대한 이해와 간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성론을 전개하였다.

至尊하여 대적할 것이 없고 純善하여 악이 없으며, 형태가 없고 작위가 없이 스스로 一心의 주제가 되는 것, 이것은 나의 성이 선함이니 태극의 이치이다. 지극히 신령스럽고 무궁하며, 변화에 응하여 잃음이 없고, 氣가 있고 작위함이 있으면서 만사를 주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의 職分이니 음양의 덕이다. 그러나 性은 하나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실제로 고금의 聖衆이 다름을 부여함이 없다. 心은 하나의 일이 불능함이 없으나 간혹 邪·正·善·惡이 다르게 발함이 있다. 또 사람이 稟受한 氣가 같지 않기 때문에 타고난 재주가 淸·濁·粹·駁의 다름이 있다. 배움의 도는 불능함이 없는 마음으로 갖추지 않음이 없는 理를 구하는 것이니,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性善을 회복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 도는 곧 五常의 이치이며, 그 배움은 四勿 공부이다. 이는 우리 聖學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귀하여 천하의 이치가 됨으로써 보탬이 없게 된 것이다.⁶⁰⁾

60) 『敬窩私稿』下 권2, 「與裴炳植 乙丑」, “至尊而無對, 純善而無惡, 無形無爲而自爲一心之主宰者, 此吾性善, 太極之理也; 至靈而無窮, 應變而無失, 有氣有爲而能爲萬事之主宰者, 此吾心職, 陰陽之德也. 然性無一理之不具, 而實無古今聖衆之賦異; 心無一事之不能, 而或有邪正善惡之發殊. 且人稟氣不齊, 故才有淸濁粹駁之異. 學之爲道, 以其無所不能之心, 求其無所不具之理, 克其己私而復其性善而已矣. 然其道則是五常之理也; 其學則有四勿之工, 此吾聖學所以爲至善至貴而天下之理, 莫能加焉者也.”

이 논설은 80세 때 문인 裴炳植에게 보낸 서간에 보인다. 문인이 爲己之學에 대해서 문자 심성론의 차원에서 설명을 가하고 있다. 순선하고 무형무위이면서 저절로 마음의 주재자가 되는 것은 性이요, 작위를 하면서 변화에 응하여 만사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은 心이라고 한다. 性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으로 차별성이 없지만, 心은 사람마다 邪正善惡의 차이가 있고 氣에는 清濁粹駁의 차별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문이란 心으로 理를 구하는 것이며, 극기하여 순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도는 五常(仁義禮智信)의 이치이고, 배움은 四勿(非禮勿視言聽動) 공부라고 규정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죽사와 금재를 통하여 간재학을 사숙한 경와는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을 강령을 세우는 한편, 강학활동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간재를 良聖이라고까지 존칭한 데에는 이러한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경와가 시대적 위기로 인하여 학문과 강학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깊은 철학적 논설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것은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와의 학문적 관심은 첨예한 이기심성론보다 聖學이라 여겼던 經學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세기에는 깨어 있는 지식인들의 綱領과 名分の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밀하게 사서삼경집주를 언해하고 후진의 학문을 啓導한 점은 개인을 넘어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V.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와의 학문과 사상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篤信好學의 정신으로 도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守死善道의 정신으로 후학을 계도하여 단절의 위기에 놓인 전통적 가치관을 되살리려 하였다. 먼저 反求와 自戒를 통하여 자신을 추스르고, 忠信篤敬과 眞知實踐을 근간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지행합일의 학문적 경지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경와는 스승 죽사와 금재를 사사하며 간재의 대표적 학설인 성사심제설을 이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성사심제설을 性天心地로 설명하였으며, 간재의 성사심제설과 성존심비설을 토대로 학문의 규범을 설정하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강학활동은 이 시대 학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이로 인하여 경와는 첨예한 성리학적 명제보다는 경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필생의 작업으로 완성한 『사서삼경집주언해』 35책은 한국경학사에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서 현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적 격변기에 처했던 경와의 삶은 그 변화만큼이나 치열하였다.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변화에도 도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준 好學 정신과 善道 정신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귀감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천학비재로 인하여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두루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하루빨리 선생의 학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參考 文獻>

『論語』

『中庸』

『禮記』

嚴命涉, 『敬窩私稿』上下(筆寫本), 金山書舍 所藏本.

嚴命涉, 『舜山日記』(筆寫本), 金山書舍 所藏本.

田 愚, 『良齋集』(한국문집총간 332~336집)

박혜범, 『조선역사천자문』, 이담, 2010.

Abstract

The Studies and Ideologies of Gyeongwa Eom Myeong-seop

/ Lee Eun-hyuk*

Gyeongwa Eom Myeong-seop was a Confucian scholar that tri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values of Korea against the Western culture that rushed into the countr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e started to study the Confucian scriptures under many masters as a child and further advanced in his study under Geumjae, a pupil of Ganjae, after Korea took back its independence.

Facing the rapidly changing years from modern to contemporary times, he strived to revive the traditional values in a crisis of rupture by inheriting the heritage of moral philosophy in the spirit of "believing devotedly and enjoying learning" and guiding younger students in the spirit of "guarding morality at the risk of life." He tried to find answers in himself by reflecting on himself, was always alert to himself, and formed a foundation with the Confucian spirits of "trustworthy words and committed actions" and "acting based on accurate knowledge," ultimately wishing to reach the academic status of unity of words and actions.

In Korea, Neo-Confucianism continued through Toigye, Yulgok, Wooam, and Ganjae, whose studies were passed down to Geumjae Choi Byeong-shim. Gyeongwa understood the ideologies of Ganjae well and developed them based on his understanding, reflecting them in his education. He explained Seongsashimje(性師心弟: The human nature is the teacher, and the mind is the pupil) of Ganjae with Seongcheonshimji(性天心地: The human nature is the Heaven, and the mind is the Earth). He provided education in the belief that anyone could make a determination and become a saint.

* Lecture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imgidang@hanmail.net

In the dismal situations of his times, he took a stronger position as a moral philosopher rather than an inquirer into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Neo-Confucianism, by cultivating the body and mind mainly through the scriptures and practicing the morality of sages. It seems like a natural conclusion for him as he was living in an era of violent upheaval when the traditions collapsed and the values were changing rapidly. A period sense of duty is to recognize one's situations of his or her times and decide his or her scholarly duties accordingly. It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self-reflection. It is only natural that people should first reflect on themselves before taking on the tasks of the times. The most basic attitude and obligation of scholars ask them to seek everything in themselves, find answers, and work hard to practice them since the logic of all things is inherent in them.

Gyeongwa's life was as intense as the changes during the period of violent upheaval. He practiced himself a sense of duty as a moral philosopher in spite of confusing values and social changes, and his spirit sets a good example of placing greater importance on practice than knowledge.

【Key words】 Gyeongwa(敬窩) Eom Myeong-seop, Ganjae(長齋), Jooksa(竹師), Geumje(欽齋), Seongsashimje(性師心弟:The human nature is the teacher, and the mind is the pupil), Seongcheonshimji(性天心地:The human nature is the Heaven, and the mind is the Earth)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9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